



김명근 기자의 IT월드

더 치열해진 OTT 경쟁

“유튜브·넷플릭스에 맞서라” 토종기업은 OTL 아닌 OTT

〈‘좌절’을 뜻하는 문자〉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CJ헬로비전 TV 기반 OTT 11월 출시
스카이라이프 3개국 합작 ‘텔레비’ 선포
PC·스마트TV 등으로 플랫폼 영역 확장



‘OTT’(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OTT는 일반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새 OTT 기기 및 서비스를 선보이기가 하면, 적용 대상 플랫폼을 스마트TV와 PC 등으로 넓히는 등 서비스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공세에 맞선 토종 기업들의 전략이다.

CJ헬로비전은 19일 TV 기반 OTT를 11월 초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여명 규모의 최종 사전 테스트(CBT)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자 모집은 29일까지다. 새 서비스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으로 시청경험을 최적화하는 사용자환경(UI)을 제공해 ‘TV를 보는 새로운



국내 토종 업체들이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공세에 맞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적용 기기를 확대하는 등 OTT 강화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가 모바일 기반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를 PC로 볼 수 있도록 내놓은 ‘옥수수 PC버전’.

사진제공 | SK브로드밴드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전통 TV콘텐츠는 물론 OTT와 멀티채널네트

워크(MCN),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스카이라이프 OTT 기기 ‘텔레비’

명과 상세 스펙은 출시 시점 공개된다.

KT스카이라이프도 TV 기반 OTT ‘텔레비’를 19일 출시했다. 한국의 KT스카이라이프, 중국의 샤오미, 미국의 구글 등 3개국 기업 합작으로 탄생했다. 샤오미의 미박스에 구글의 ‘누가’ 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스카이라이프의 UI를 적용했다. 지상파와 종편 등 8개 채널로 구성된 기본팩은 월33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영화와 연예오락, 스포츠 등 장르별 약30여개 채널로 구성된 선택형 패키지에선 개인 취향에 따라 원하는 채널을 골라 볼 수 있다. 채널 당 요금은 월550원이며 셋톱박스 가격은 8만9000원이다. 서비스를 다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플

랫폼을 확장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최근 모바일 기반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를 PC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모바일에 비해 큰 디스플레이 환경을 고려해 전체 채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자이크 뷰’와 PC의 특성을 살려 탐색을 하면서 시청할 수 있는 ‘미니 플레이어’ 기능을 제공한다. 기존 모바일 버전에서 제공하던 채팅서비스를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베타 서비스에선 100여개의 실시간 채널과 약 8만 여편의 주문형비디오(VOD), 12만여 편의 클립영상도 제공한다. SK브로드밴드는 PC버전에서 볼 수 있는 채널과 VOD 편수를 지속 확대하고 풀HD 콘텐츠의 제공도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모바일과 PC에서 이용하던 서비스를 TV로 확장하는 사례도 있다. 아프리카TV는 스마트TV용 애플리케이션을 최근 출시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2017년 삼성 스마트TV 전 라인업은 물론, 2015년 이후 출시된 모든 삼성 스마트TV에서 이용 가능하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휴대전화 구입파로, 가입파로…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될까

관련법 개정안 발의…이해관계 얽혀 난항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까.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될 전망이다. 이미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나왔다. 20대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원하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다. 30년 가까이 유지된 시장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큰 변화여서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의 이외에 다른 의원들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의는 앞으로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조사와 이동통신기업, 이동통신유통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함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지 미지수고, 오히려 영세한 유통점의 도태 등 유통망 재편에 따른 시장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선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도입에 앞서 세부적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아키에이지 비긴즈’ 10월25일 출시

게임빌은 모바일게임 기대작 ‘아키에이지 비긴즈’(사진)를 10월25일 출시한다. 글로벌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 동시 출시 예정이며, 다음 주 초 글로벌 사전 예약 프로모션도 시작할 계획이다. 아키에이지 비긴즈는 국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끈 PC온라인게임 ‘아키에이지’를 기반으로 한다. 전민희 작가가 참여한 아키에이지 연대기 원작의 스토리와 세계관을 반영해 새롭게

탄생시킨 모바일 수집형 3D 역할수행게임(RPG)이다. PC게임 원작에서 나왔던 30여 종의 다양한 영웅들이 등장한다. 원작의 인기 콘텐츠인 하우징과 낚시, 무예 등 생활형 콘텐츠는 물론 핵심 경쟁 콘텐츠인 ‘영지전’도 모바일 기기 특성에 맞춰 담아냈다. 언리얼엔진4를 사용한 고품질 그래픽도 강점이다.

김명근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SK텔레콤이 11월19일까지 에버랜드 알파인빌리지에 운영하는 ‘5G 어드벤처’. 에버랜드 입장 고객은 누구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등 5G 시대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통해 짜릿한 할로윈을 경험할 수 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SKT, 에버랜드에 ‘5G 어드벤처’ 운영

SK텔레콤은 에버랜드 알파인빌리지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실감형 미디어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5G 어드벤처’를 11월19일까지 2달 간 운영한다. 규모는 800㎡로, 할로윈을 주제로 좀비와 마녀가 등장하는 ‘유령의 집’을 AR과 VR로 재현했다. 소비자들은 마차를 타고 좀비와 마녀를 피해 달리는 VR 체험공간인 ‘죽음의 질주’, 마법빗자루 가상여행 ‘마녀 비행’ 등을 즐길 수 있다.

방 형태로 구성된 AR·VR 체험공간인 ‘저주

받은 인형’과 ‘어둠의 방’에선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새로운 공포체험도 가능하다. 어두운 지하실을 탈출하는 스토리를 담은 ‘저주받은 인형’은 360 AR 워크스루 기술이 접목됐다.

이 외에도 타임슬라이스 ‘빗자루 점프’와 VR ‘좀비 슬래서’, 할로윈 홀로그램 등의 체험공간도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5G 어드벤처는 매일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운영한다. 에버랜드에 입장한 고객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김명근 기자

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일양MSM프리미엄

일양약품 건강기능식품

MSM이란?

MSM은 연골, 인대, 연결조직 등을 구성하는 물질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안전성을 인정받은 소재입니다.

전화주시면 36정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노화로 관절건강에 이상이 있으신 분
- 계단을 오르내릴때
- 무릎,허리가 불편하신 분
- 하루종일 서서 일하시는분
- 관절사용이 많으신 분
- 과체중으로 관절건강에 유의해야 하는분

36정
※택배비 2,500원 본인부담

MSM 36정 무료신청 ☎ 02-903-3627, 02-903-3628